

〈특집 : 東유라시아 물품 교역의 현황과 전망〉

交易品으로서 顔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 中國 先秦時代를 중심으로 -

金 炳 模*

〈목차〉

- I. 序論
- II. 新石器 社會에서 顔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 III. 初期 青銅器 및 商代 社會에서 顔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 IV. 周代 社會에서 顔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 V. 結論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안료의 향유와 소유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상관성을 갖고 연계되는지 연계 지점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교역품으로서의 안료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경계에서 논의해갈 수 있는 토대 및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검토 결과 신석기시대에 이미 안료의 소유 및 사용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특히 최상계층을 중심으로 안료 및 채색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게 실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채도가 옥기의 희소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상황들도 출현시킨다.

이후 초기 청동기시대를 거쳐 상대에 진입하면서 계층간 안료 소유의 차별화

* 東國大學校 研究教授

가 더욱 심화되고 서주시대에도 그러한 양상을 거의 그대로 지속해간 것으로 파악된다. 춘추전국시대의 경우 신분적으로 士급 이하 계급에서는 채색문화의 향유가 쉽지 않았고, 경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채색문화의 적극적 향유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신분보다 경제력 문제가 채색문화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상의 내용은 신석기시대를 포함한 선진시대에 이미 교역품으로서의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읽게 한다.

□ 주제어

선진시대, 신석기시대, 안료, 안료 교역, 안료 가격,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

I. 序論

중국에서 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본격화하였다. 따라서 안료에 대한 다양한 담론은 근래에야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료의 종류 및 특성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고, 기타 벽화의 보존 및 수복과 관련하여 변색의 문제, 시기에 따른 안료 교체, 산출지 등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교역품으로서 인식을 위한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 즉 안료의 가격 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면 매우 소략한 상황이며, 그나마 수당대 이후의 양상을 검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의 연구 범위인 선진시대의 경우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 역시 구체적이고 집약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연구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료에 관한 선진시대 문헌 기록의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다시 말해 신석기 및 청동기라는 시대공간 속에서 교역 활동 자체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교역품으로서 안료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석기시대 중국에서 출현시킨 안료는 홍색안료로서 주사(HgS)를 포함하여 산화철계통의 철홍(Fe_2O_3), 그리고 방해석($CaCO_3$)과 석고($CaSO_4$)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안료 등이 확인되며, 뒤이은 청동기시대에는 이들 안료를 포함하여 석록($Cu_2(OH)_2CO_3$)과 석청($Cu_3(OH)_2(CO_3)_2$)으로 예상되는 녹색과 청색의 안료도 출현시킨다.¹⁾

이들 안료 가운데 흑, 백, 홍 3색 안료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 안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되었는지 구체적 과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안료 산출지 파악 및 각 지역에서 사용된 안료의 성분 비교 등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역품으로서 안료에 대한 인식 역시 구체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홍색안료인 주사는 인공제조가 아닌 천연산인 경우 후대에도 산출지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원거리 교역이 아니면 공급이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청동기시대에 출현시킨 녹색의 석록과 청색의 석청 등도 진한시대까지 여전히 산출지가 몇몇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급 방식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교적 원거리 교역품으로서 안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논

1) 김병모, 「中國 新石器時代의 顔料」, 『단군학연구』 22, 2010; 김병모, 「夏代의 안료와 채색문화 -안료의 사용과 채색문화기반의 변화원인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25, 고조선단군학회, 2011.

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개진한 것이며, 교역품으로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고대사회에서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 파악에 관심을 둔 것이다. 안료의 향유와 소유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상관성을 갖고 연계되는지 연계 지점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교역품으로서의 안료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경계에서 논의해갈 수 있는 토대 및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新石器 社會에서 顔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신석기시대 채색관련 자료는 많지 않다. 도기 표면에 이루어진 채도 및 채회도, 주거지 등의 벽면 및 바닥면에 이루어진 채회벽화 잔편, 암벽에 그려진 채회 암화, 화구에 남아있는 안료 잔적, 인골 및 인골 주변에 칠하거나 뿌려 둔 안료 편 등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에서 확인되는 안료 종류는 흑, 백, 홍 3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흑색의 경우 탄소(C)를 주성분으로 하는 흑탄 계통의 안료가, 백색의 경우 方解石(CaCO_3)과 石膏(CaSO_4)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가, 홍색의 경우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철홍(Fe_2O_3)과 수은과 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朱砂(HgS) 등이 확인된다. 산화철 계통 안료의 경우 Fe_2O_3 와 SiO_2 의 함량 차이에 따라 홍색뿐만 아니라 紫色의 색조가 더해진 경우도 나타나며, 특히 채도와 같이 열이 가해진 경우 흑, 백, 홍 이외에 紫色, 黑色, 紫紅, 黑紅, 黑紫, 黑褐 등 다양한 색으로 발현되기도 한다.²⁾

후대에 비해 안료 종류가 단순한 양상을 보이지만 사용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사용량 역시 기대했던 것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채색 행위가 신석기시대 사회문화적 행위의 하나를 읽어내는 유의미한 텍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채색 행위의 유의미성을 뒷받침하듯 채색 표현의 개념 역시 비교적 체계적이고 정세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홍색 분장의 도기 바탕에 흑, 백, 갈 3색을 조합시켜 보다 다양한 채색 조합군을 제시하려는 표현 의지는 그와 같은 채색 개념의 형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읽게 하는 대목이다.³⁾

신석기시대에 사회구성체계의 분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는지 구체적 이해 및 자료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분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음이 확인된다.⁴⁾ 묘의 규모와 수장품의 종류 및 수량의 차등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실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석기시대 채색행위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성에 대한 탐색 역시 시도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특히 안료 생산이 보다 체계화되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된 후대에도 일정한 경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료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상황을 고려하면 신석기시대에도 적지 않은 제약 속에서 채색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신석기시대에 이미 채색에 대한 의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⁵⁾ 채색 행위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보다 구

2) 김병모, 「中國 新石器時代の 顔料」.

3) 김병모, 「중국 신석기시대 채도의 장식 개념과 목적」, 『先史와 古代』 33, 2010.

4) 김병모, 「중국 신석기시대 채도의 장식 개념과 목적」; 「중국 신석기시대 도기에서 표면장식을 대하는 기본 입장-장식의 목적과 의욕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23, 2010; 「중국 신석기시대 도기의 채색표현법과 안료수급의 관계 - 대문구유적과 유만유적의 채색도기를 중심으로 -」, 『고조선단군학』 24, 2011 등 참조.

5) 김병모, 「중국 신석기시대 채도의 장식 개념과 목적」; 김병모, 「중국 신석기시대 도기의 채색표현법과 안료수급의 관계」.

체화된 모습으로 파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기존에 제출된 발굴보고서 등에서 안료 사용 양상에 관한 언급이 매우 소략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점에서 안료 사용 양상을 정리,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과 안료 사용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산동성 대문구 유적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

산동 진안현(泰安縣)과 영양현(寧陽縣)의 경계 지역에 놓여있는 이 유적의 경우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3차례 발굴이 진행되었는데⁶⁾ 1974년과 1997년 제출된 발굴보고서 『大汶口』와 『大汶口續編』 등은 묘의 형제 및 구조, 매장 특징 등을 포함하여 묘의 크기, 묘주의 연령, 묘의 분기, 장례 물품, 출토 유물 등에 관해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하고 있다.⁷⁾ 총 189기의 묘 가운데 1차 발굴에서 얻어진 묘는 133기인데,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분기가 설정, 제시된 경우는 117기이다. 그리고 117기 묘의 분기는 조기, 중기, 말기의 3기로 제시되고 있는데 조기의 경우 방사성 탄소연대가 대략 기원전 4000년경으로 나타난다.⁸⁾ 안료의 사용과 묘주 경제력과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분기가 정해진 117기 묘이며, 그 가운데서도 조기 묘가 주요 검토대상에 해당한다.

117기 가운데 조기에 해당하는 묘는 74기이다. 이들 대부분은 도기를 포함한 다양한 수장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기에 채색이 가해진 채도는 일반 도기와 달리 74기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7기 묘에 한정된다. 그리고 17기 묘 가운데 9기는 길이 2.5m 이상인 대형묘에 해당하므로 채도는

6) 3차의 발굴은 1959년, 1974년, 1978년에 진행된 것이다.

7) 山東省文物管理處·濟南市博物館, 『大汶口 - 新石器時代墓葬發掘報告 -』, 文物出版社, 1974;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大汶口續集 - 大汶口遺址第2·3次發掘報告書 -』, 科學出版社, 1997.

8)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大汶口續集』, 199쪽.

주로 대형묘 위주로 매장이 이루어졌음을 읽게 한다. 그런데 조기묘 74기 가운데 대형묘는 모두 15기이므로 결국 채도는 대형묘의 60%에 수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묘의 크기에 따른 채도의 매장 양상은 중형묘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조기묘 74기 가운데 길이가 2.0-2.5m인 중형묘는 총 38기로서 대형묘 15기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이다. 그런데 중형묘 38기 가운데 채도를 수장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6기, 즉 38기의 15%에 한정된다. 이는 대형묘 전체에서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 60%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길이 2.0m 이하의 소형묘의 경우 역시 총 21기 가운데 채도를 수장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2기, 즉 21기묘의 9.5%에 불과한 양상이어서 이 역시 중형묘 15%보다 작은 수장 비율을 보여준다.⁹⁾

다음으로 중기에 해당하는 묘는 총 19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도를 수장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만기의 경우 총 24기의 묘가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채도를 갖고 있는 묘는 6기, 즉 전체의 25%에 이르러 조기 묘 74기 가운데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 2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6기의 채도 묘 가운데 묘의 길이 2.5m 이상인 대형묘가 4기이므로 대형묘 가운데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이른다. 이 역시 조기 대형묘에서 보여준 수치 6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묘의 길이가 2.0-2.5m에 속하는 중형묘와 그 이하인 소형묘의 경우 채도를 수장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각각 1기에 불과하므로 대형의 채도 묘 4기와 비교하면 절대량에서 차이가 작지 않다.¹⁰⁾ 그리고 6기의 채도 묘에서 중형과 소형의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각각 16%로서 대형의

9) 山東省文物管理處·濟南市博物館, 『大汶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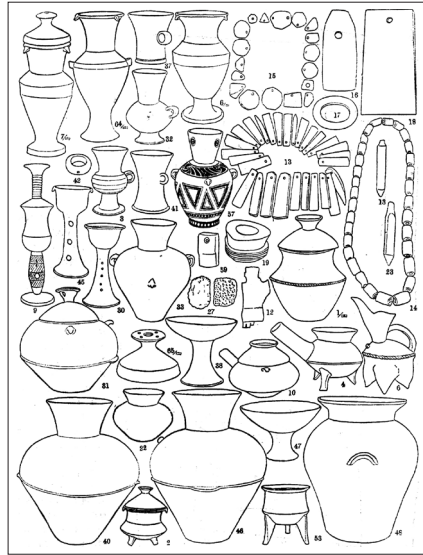
10) 길이가 2.0m 이하인 소형묘 1기에서 출토된 채도는 1점이다.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 66%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채도 묘 6기 가운데 중형과 소형의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각각 16%에 해당하므로 조기의 중형묘에서 보여준 수치 15% 및 소형묘에서 보여준 수치 9.5%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내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만기묘 24기 가운데 대형묘가 14기, 중형묘가 9기이므로 대형묘와 중형묘 각각에서 채도 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9%, 11%로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만기의 경우 중형묘와 소형묘에서 채도를 수장하고 있는 묘의 절대량이 너무 낮아 비율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묘의 크기에 따른 채도의 수장 양상은 조기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상의 검토 내용은 신석기시대 중기 즈음 산동지역에서 채도의 소유가 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 주로 한정되고,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유욕이 강하게 실현되는 물품에 해당하였음을 확인시킨다.

아울러 10호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일부를 도시한 도1을 보면 이 지역에서 채도가 옥기 못지않은 희소성을 갖는 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대형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이 묘의 경우 상당수의 도기와 더불어 록송석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管狀 형태의 구슬로 된 목걸이, 녹색



도 1. 山東 大汶口遺蹟 10號墓 器物圖

옥으로 만든 팔찌 등 다양한 옥기류를 수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채도는 도 1에 도시된 것을 포함하여 2점만 수장하고 있다. 함께 발굴된 26호묘 역시 20여 점의 도기 이외에 석기, 骨器, 牙器, 角器, 장식품, 돼지머리, 龜甲, 魚骨 등 40여 점의 유물을 수장하고 있지만 채도는 3점에 불과하다.

신석기 후기에 해당하는 산서성 襄汾縣 陶寺유적에서도 대형묘에 해당하는 3015호의 경우 옥기 등을 포함하여 부장품이 200여 점 이상으로 상당한 경제력을 드러내지만 채색이 이루어진 도기는 극히 소량에 한정되며, 이 묘의 경우 홍채 바탕 위에 黑, 白, 黃, 綠, 寶石蘭 등의 채색 도안이 그려진 목기도 1점만 출토시킨다.¹¹⁾ 심지어 이 유적에서는 옥기를 소유한 대형묘조차도 채도 수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수 나타난다. 일례로 만기에 속하는 25호묘의 경우 채도는 없지만 57점의 도기 이외에 녹색 옥비녀와 돌팔찌, 돌반지 등을 비롯하여 白陶, 黑陶, 牙器, 角器 등 풍부한 유물을 출토시킨다.

묘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성을 갖는 채도 수장 양상은 산동성 동남단 교주만 인근의 교현에 위치한 삼리하 유적의 대문구 문화층에서도 확인된다. 1973-74년에 발굴된 이 유적의 대문구문화층은 주로 일반주거지와 66기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이 중심을 이루는데, 소량의 채도와 1점의 채회도는 3기의 중대형 묘에서만 출토되고 있다.¹²⁾ 그런데 이 문화층의 경우 66기 묘에서 옥기 30여점을 출토시키고 있어 채도가 옥기 못지않게 희소성이 강한 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특히 옥기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요동의 수암현(岫岩縣)에서 교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발굴보고서는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¹³⁾ 이 역시

1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 「山西襄汾陶寺遺址發掘簡報」, 『考古』 1980-1.

1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膠縣三里河』, 文物出版社, 1988, 52-53쪽.

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膠縣三里河』, 42쪽.

희소성이 매우 강한 유물에 해당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청해성 및 감숙성 지역은 채도 출현이 증원지역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채도가 대량 제작되는 상황을 출현시킴으로써 본고에서 다루는 계량화 과정에 좀 더 유의미한 텍스트를 제공한다. 일례로 오늘날 青海省 동단 악도 현의 유만유적에서 출토된 마가요문화 마창유형 채도의 경우 1974-1975년에 이루어진 2차에 걸친 발굴 결과를 근거로 할 경우 318기 묘에서 3000여 점의 채도가 출토되는데¹⁴⁾, 이 가운데 대형묘에 해당하는 197호, 211호, 564호 등 3기묘에서 출토된 채도 수량이 각각 62점, 57점, 87점으로 중형묘에서 출토된 10점 내외의 채도, 그리고 소형묘에서 출토된 1-2점의 채도 수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197호묘의 경우 수장하고 있는 전체 도기 63점 가운데 채도가 62점으로 채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이른다. 211호묘의 경우도 도기 63점 가운데 채도가 57점으로 90%, 564호묘의 경우 도기 91점 가운데 채도가 87점으로 95%의 채도 수장 비율을 내보인다. 이에 비해 중형묘의 경우는 각 묘에서 수장하고 있는 도기가 20-40점에 한정되고 전체 도기에서 채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40%로서 대형묘의 채도 수장 비율과는 2.5-5배 정도의 차이를 내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묘의 규모가 클수록, 다시 말해 묘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클수록 채도에 대한 소유욕이 크고 소유욕에 대한 성취도 역시 더 크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아울러 당시 채도라는 것이 묘의 부장품으로서 소유욕이 상당히 큰 유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킨다.

14) 青海省文物管理處考古隊·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青海隊, 「青海樂都柳灣原始社會墓地反映出的主要問題」, 『考古』 1976-6; 青海省文物管理處考古隊·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 「青海樂都柳灣原始社會墓葬第1次發掘的初步收穫」, 『文物』 1976-1; 青海省文物管理處考古隊·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青海柳灣 - 樂都柳灣原始社會墓地 -』, 文物出版社, 1984.

채도에 대한 특별한 소유욕은 함께 넣어둔 기타 유물의 매장 양상을 통해서 보다 뚜렷이 읽어낼 수 있다. 일례로 석기의 경우 대형묘와 중형묘 모두 수량이 2-3점으로 수량도 적고 묘주 경제력에 따른 차별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즉 3기 대형묘의 경우 모두 石斧 1점, 石鏃 1점, 石鑿 1점을 동일하게 수장하고 있는데, 중형묘의 경우도 동일 종류의 석기를 2-3점 수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석기가 차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물품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소형묘의 경우 석기를 1점도 수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당시 묘주 경제력은 묘의 크기뿐만 아니라 묘역 공사와 기타 장례 도구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형묘인 197호묘의 경우 길이 3m, 폭 2.3m, 깊이 2m의 불규칙한 장방형 토갱묘이지만 묘실로 내려가는 묘도까지 갖추고 있으며, 묘도와 묘실 사이에는 목재 3개를 이용하여 봉문(封門)까지 설치한데 비해, 중형급인 505호묘의 경우 길이 4m, 폭 1.5-1.7m, 높이 1m로서 규모도 작고, 묘도는 물론 봉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적, 인적 투입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다만 505호묘의 경우 성인 남자 곁에 소녀 순장인이 묻혀 있고, 소녀의 발아래 깊이 20cm 되는 곳에 순장인의 두개골도 놓여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주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형묘의 경우 채도의 수장 태도에서도 중형묘 및 소형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일례로 197호묘의 경우 도기 1점을 포함한 채도 62점 모두를 가지런하게 세워서 매장하는 세심함을 내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대형묘인 211호묘와 564호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묘의 형제 및 설치물, 그리고 유물의 수장 태도 등에서 197호묘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특히 채도를 가장 많이 수장하고 있는 564호묘의 경우 옥송석 1점을 유일하게 수장하고 있어 대형묘 사이에서 보여준 채도 수량의 미세한 차이 역시 유의미한 현상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

음을 드러낸다.¹⁵⁾

그렇다고 중형묘에 묘도, 봉문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장묘인 319호묘의 경우 길이 2.5m, 폭 2.3m, 높이 2m의 장방형 토갱묘로서 묘도, 봉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채도 10점과 일반도기 15점 역시 묘주 측면과 頭部 양 부분에 12, 13점씩 가지런히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이런 양상은 중형묘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한다.

20-40점의 도기를 수장하고 각 묘에서 도기 대비 채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20-40% 수준에서 유지하는 중형묘에 비해, 소형묘는 도기가 2-3점에 불과하고 채도 역시 1점 정도에 한정되어 역시 큰 차이를 드러낸다. 일례로 소형의 170호묘는 길이 2.3m, 폭 0.5-1.1m, 높이 0.96-1.8m의 불규칙한 장방형 단인묘로서 묘도나 봉문이 없고 부장품도 도기 3점이 전부에 해당한다. 또 다른 소형묘인 171호묘의 경우, 길이 1.5m, 폭 0.88m로서 역시 불규칙한 장방형 단인묘인데, 이 역시 목관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부장품도 도기 2점과 채도 1점이 전부이다. 243호묘의 경우도 길이 2.1m, 폭 1.15m로서 불규칙한 장방형 단인묘인데 부장품으로서 도기 2점과 채도 1점을 수장하고 있을 뿐이다.

대형묘, 중형묘, 소형묘 별로 도기 및 채도의 수량과 전체 도기에서 채도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해 몇몇 묘를 실례로 하여 그 차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대형묘 3기

구분	도기 수량(점)	채도 수량(점)	채도 비율(%)
197호묘	63	62	98

15) 211호묘의 경우 불규칙한 장방형 토갱묘이며, 묘실 크기는 길이 2.55m, 폭 2.05m이다. 564호묘 역시 유사한 묘실 구조 및 형제에 유사한 장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묘실 크기는 길이 2.50m, 폭 3.06m, 높이 3.07m에 이른다.

211호묘	63	57	90
564호묘	91	87	95

표2. 중형묘 5기

구분	도기 수량(점)	채도 수량(점)	채도 비율(%)
505호묘	42	14	33
319호묘	25	10	40
348호묘	26	8	30
326호묘	30	6	20
327호묘	28	6	21

표3. 소형묘 3기

구분	도기 수량(점)	채도 수량(점)	채도 비율(%)
170호묘	3	0	0
171호묘	2	1	50
243호묘	2	1	50

이상 안료 사용과 안료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 문제에 관해 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채색관련 자료는 채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채도 이외에 묘실에 안료 편을 직접 넣어두거나 인골에 안료를 칠하는 등의 의식과 관련된 자료도 있으며, 이들 역시 안료 사용과 안료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조건과의 상관성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한 텍스트를 제공한다.

먼저 안료 편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섬서성에 위치한 자형유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유적의 경우 제5층에서 옹관묘 7기와 성인묘 16기가 발견되었으며, 안료 편이 사용된 경우는 16기의 성인묘 가운데 하나인 3호

묘에서 확인된다. 이 묘의 경우 묘주 두개골에 陶鉢을 얹혀 끼워서 특이한 매장 의식을 보여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팔 옆에는 돌도끼 1점이 놓여 있고, 신체 주변으로 주사 편이 덩어리 상태로 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묘는 16기 성인묘 중에서도 유일하게 부장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안료 사용과 사회경제적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간과할 수 없게 된다.¹⁶⁾

이와 유사한 내용은 위하 상류, 즉 섬서성 서부에 위치한 보계 복수령 유적에서도 찾아진다. 발굴보고서는 반파 조기에 해당하는 제2기의 묘 13기 가운데 중형묘 1기와 소형묘 2기만을 소개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다행히 중형묘인 17호묘를 소개하면서 황색 안료 편이 관 주변에 뿌려진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묘의 경우 소개한 14기 묘 가운데 유일하게 채도 1점을 수장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이어서 자형유적 3호묘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달랐음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묘의 경우 채도는 머리 부분에 놓아두고 일반도끼 6점은 다리 부분에 별도로 위치시킴으로써 채도의 특별한 취급을 읽게 한다.¹⁷⁾

인골에 안료를 칠한 경우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산동성 교현에 위치한 삼리하유적에서 확인된다. 이 유적의 경우 총 66기 묘가 발굴되었는데 이 가운데 인골에 안료를 칠해 둔 경우는 길이 2.5m를 넘는 중대형 묘로서 114호묘(길이 2.60m), 125호묘(길이 2.77m), 275호묘(길이 2.75m), 2101호묘(길이 2.78m), 2110호묘(길이 2.48m) 등이 그 실례에 해당한다.¹⁸⁾ 그리고 이 가운데 2110호묘는 66기 묘 가운데 부장품을 가장 많이

16) 商縣圖書館·西安半坡博物館·商洛地區圖書館, 「陝西商縣紫荊遺址發掘簡報」, 『考古與文物』1981-3.

1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寶鷄工作隊, 「1977年寶鷄北首嶺遺址發掘簡報」, 『考古』1979-2.

1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膠縣三里河』, 35쪽.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묘주 경제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 근거를 제공한다.

역시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산서성 양분의 도사유적에서도 주사를 인골 위에 뿌려놓은 경우, 흉부와 족부에 뿌려놓은 경우, 두개골 정수리와 눈썹뼈 등에 직접 칠해 놓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들이 확인되는데, 주로 목관이나 벽감이 잘 갖추어진 중형묘 이상의 묘에서 이러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¹⁹⁾ 게다가 이 유적에서는 길이 3m 내외에 해당하는 6기의 대형묘에 한정시켜 묘주 신체 등에 안료를 칠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묘실 바닥에 주사를 깔아 놓은 행위를 더함으로써 묘의 규모에 따른 안료 사용의 차별화 현상을 보다 뚜렷이 한다.²⁰⁾ 이 유적의 경우 대형묘와 중형묘는 수장품 수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일례로 대형묘인 3015호묘는 부장품이 178점인데 비해 중형묘는 2-5점, 많아야 10여 점에 한정된다.

III. 初期 青銅器 및 商代 社會에서 顏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1. 初期 青銅器時代

기원전 2000년 전후의 초기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 유행하던 채색 도기의 제작이 급격히 줄어들고 몇몇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수의 용례만 지속시킨다.²¹⁾ 하지만 인골에 안료를 칠하거나 주변에 안료를 뿌리는 장

19) 중형묘는 길이 2.2-2.5m 규모를 말하며 50-60기 정도이다.

2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臨汾地區文化局, 「1978-1980年山西襄汾陶寺墓地發掘簡報」, 『考古』 1983-1.

21) 김병모, 「夏代의 안료와 채색문화 - 안료의 사용과 채색문화기반의 변화원인을 중

례 의식은 큰 변화 없이 지속하고, 채색목기류 등을 새로운 채색자료로 출현시킨다.

이들 유물에서 확인되는 채색은 흑, 백, 홍, 황, 녹, 청 등이다. 이 가운데 황, 녹, 청의 용례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흑, 백, 홍 3색 위주로 전개되던 신석기시대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안료에 대한 분석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주사(HgS)를 제외한 기타 안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 신석기시대에 사용하던 탄소(C)를 주성분으로 하는 흑탄 계통의 백색안료, 方解石(CaCO₃)과 石膏(CaSO₄)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안료,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철홍((Fe₂O₃) 등의 경우 이후 시대인 주대 안료를 근거로 할 경우 이 시대에도 지속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녹색과 청색안료의 경우 일부 유적에서 출토된 공작석 등에 근거하여 석록(Cu₂(OH)₂CO₃)과 석청(Cu₃(OH)₂(CO₃)₂) 등의 출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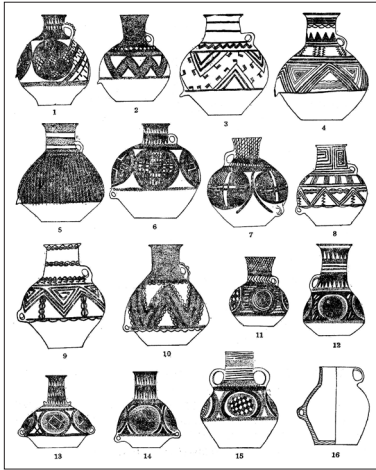
이 시기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자료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섬서성 양분에 위치한 도사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1798년-1980년에 걸쳐 1000여 기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신석기후기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채색유물 대부분이 6기의 대형묘에 집중되고, 특히 부장품이 월등히 많은 3015호묘에 채색도기가 집중되는 양상을 출현시킨 바 있다. 흑, 백, 홍, 황, 청 등 다양한 채색 용례 역시 3015호묘서 출토된 채회호와 채색목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²³⁾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면 묘의 수장품으로 채도가 크게 감소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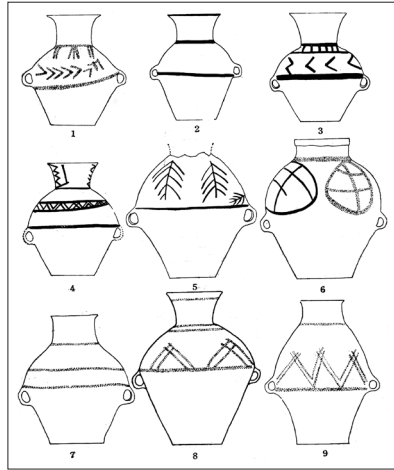
심으로 -, 『고조선단군학』 25, 2011.

22) 김병모, 「夏代の 안료와 채색문화」.

23) 이 묘는 묘갱 안에 178점의 유물을 갖고 있고 옆에 마련된 회갱에도 30점의 유물을 갖고 있어 수장품이 총 200여 점에 이른다. 유물의 종류도 도기, 목기, 옥기, 석기, 골기, 벼루, 연봉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臨汾地區文化局, 「1978-1980年山西襄汾陶寺墓地發掘簡報」).



도 2. 청해성 유만유적 마가요문화 마창 유형의 채도호



도 3. 청해성 유만유적 제가문화의 채도호

을 출현시킨다. 다만 대형묘의 경우 50-90점에서 20-40점으로 약 1/2 정도 줄어들었는데 비해, 중형묘의 경우 20-40점에서 2-3점으로 약 1/10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 채도의 감소 현상이 채색의욕이 여전히 높은 상황속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읽게 한다. 아울러 채색을 제약하는 상황이 출현할 경우 대형묘 위주로 채색문화가 보다 적극 향유되고 실현된다는 점 등도 읽게 한다. 뿐만 아니라 중형묘 가운데 채색도기가 출토되는 묘는 대부분 대형묘 곁에 조성된 묘에 집중된다는 사실로부터 대형묘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 경우를 중심으로 채색문화의 향유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도 일면 드러낸다.

당시 채색도기 감소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2와 도3에서 보듯이 이 시기(제가문화시기)에 이르러 나타난 채색 면적의 감소, 즉 안료 사용량의 감소 현상에 주목한다면 안료 수급의 어려움이 채색도기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주목할 자료는 하남 언사현 二里頭유적이다. 이 유적의 연대

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개 하대 말에서 상대 초기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동서 2.5km, 남북 1.5km의 촌 중앙에 궁전기지로 추정되는 건축이 2개 조성되었으며, 궁전기지의 규모는 동서 108m, 남북 100m에 이른다.²⁵⁾ 채색 유물은 채색 도편, 채색 옥기, 칠기 및 칠관 등에 이루어진 칠피 등이며 주로 궁전기지 동남부 주변과 촌 서북지역 그리고 제3구, 5구, 6구 등으로 구획된 지역에서 출토되었다.²⁶⁾

이 유적의 경우 일반생활 주거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일반 주거지에서는 채색 자료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대부분 묘의 수장품에 한정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만한 자료는 제3, 5, 6구에서 발견된 9기 묘 가운데 7기 묘이다. 이들 7기 묘의 경우 바닥에 주사가 뿌려져 있는데 묘의 규모에 따라 바닥에 뿌려진 안료 층의 두께를 달리 함으로써 안료 사용과 묘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텍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형묘에 해당하는 2호묘의 경우 관의 폭에 맞추어 관 아래에 6cm 높이로 주사를 뿌려 놓고 있는데 이 보다 규모가 작은 중형급 3호묘의 경우 바닥에 뿌려 놓은 주사 층의 높이가 2-3cm로 2호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3호묘와 크기가 비슷한 4호묘의 경우는 더욱 줄어들어 주사 층의 높이가 1-2cm에 불과하다. 게다가 2호묘는 묘실 중앙 바닥에 별도로 조성한 요갱에도 주사를 가득 채워 놓고 있으며, 부장품으로서 銅爵 2점,

24) 이 유적의 연대 관하여는 하대에 속한다는 견해, 상대에 속한다는 견해, 1-2기는 하대에 속하고 3-4기는 상대에 속한다는 견해, 1-3기는 하대에 속하고 4기가 상대에 속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 文物出版社, 1984; 吳汝祚, 「關於夏文化及其來源的初步探索」, 『文物』 1978-9).

25)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頭工作隊, 「河南偃師二里頭早商宮殿遺址發掘簡報」, 『考古』 1974-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頭工作隊, 「河南偃師二里頭早商宮殿遺址三、八區發掘簡報」, 『考古』 1975-5.

26) 자세한 내용은 김병모, 「夏代の 안료와 채색문화」 참조.

銅刀 2점, 玉圭 1점, 玉越 1점, 陶盃 1점, 陶爵 1점, 平底陶盆 1점, 圓陶片 4점 등을 포함하여 관 안에 칠기와 옥송석편, 운모편 등을 수장함으로써 3, 4호묘 경제력을 크게 증가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 유적의 경우 소형묘에도 바닥에 주사가 뿌려져 있는데 안료 층의 두께 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량만 사용됨으로써 중형묘와도 뚜렷하게 대비된다.²⁷⁾ 소형묘의 경우 묘 길이가 2m 이하이고 대형묘 3기와 달리 묘갱에 2층 계단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며, 묘갱 깊이도 대개 1m 이하에 해당한다.

이외에 二里斗 2호 궁전의 殿堂 기지 뒤쪽으로 1.5m 거리에 위치한 묘 바닥에서도 주사가 발견되는데 이 묘 역시 입구의 길이가 5.2-5.35m, 폭이 4.25m, 깊이가 6.1m에 이르는 초대형 수혈묘에 해당한다.²⁸⁾ 이리두촌 서북에 위치한 중대형묘 2기 가운데 1기에서도 관 아래에 주사 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사는 길이 2.4m, 폭 1.5m의 넓이에 1.5-5cm의 높이에 이르는 양이다. 아울러 주사 층 안에 玉柄飾 1점과 圓陶片 2점 등도 함께 넣어 두고 있어 묘주 경제력이 비교적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 묘의 규모는 길이 2.9m, 폭 1.77m로서 주사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214호묘보다 훨씬 크다.²⁹⁾

2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斗隊, 「1980年秋河南偃師二里斗遺址發掘簡報」, 『考古』 1983-3.

28) 이 묘는 2층의 계단도 갖추고 있고 묘실에서는 칠피도 확인되고 있다. 묘실 크기는 길이 1.85m 폭 1.3m, 높이 1.2m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斗隊, 「河南偃師二里斗二號宮殿遺址」, 『考古』 1983-3).

29) 214호묘의 규모는 길이 1.87m, 폭 0.58-0.65m이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斗工作隊, 「河南偃師二里斗遺址三, 八區發掘簡報」, 『考古』 1975-5).

2. 商代

상대 채색문화의 기본양상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자료는 상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하남성 안양의 은허유적에서 출토된 채색자료이다. 이 유적에서는 앞 시기에 출현시켰던 채색도기, 칠기, 칠관곽, 안료 편 등을 포함하여 朱書, 채색도안의 직물류, 벽화 잔편 등 좀 더 다양한 실례들을 출현시킨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채색문화가 적극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특히 일반 주거지 및 생활공간에서 적극적인 채색문화의 전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즉 수공업장이나 건축지 주변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동기, 銅刀, 陶片, 陶范, 磨石, 骨料, 복골 등 다양한 유물들을 출토시키고 있으나 채색 용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여러 건축물과 청동기 제조장이 위치한 소둔촌 남부 묘포(苗圃)지역의 150여개 회갱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³⁰⁾ 대사공촌의 40여 개 회갱에서도 상당수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나 채색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유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생활 공간에서 확인되는 채색관련 자료는 소둔촌 궁전터에서 발견된 기하문양의 벽화 잔편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왕조가 출현한 상대사회에서도 안료와 관련된 담론은 여전히 묘와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묘에서 출토된 채색유물 역시 기대만큼 많지 않다. 일례로 1958-1961년에 발굴된 총 428기의 묘 가운데 부장품을 갖고 있는 묘는 224기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칠기를 부장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10기 미만이다. 그나마 각 묘에서 출토된 채색유물의 수량도 대개 1점 정도에 불과하고 훼손으로 칠피만 남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³¹⁾ 이러한 내용은 상대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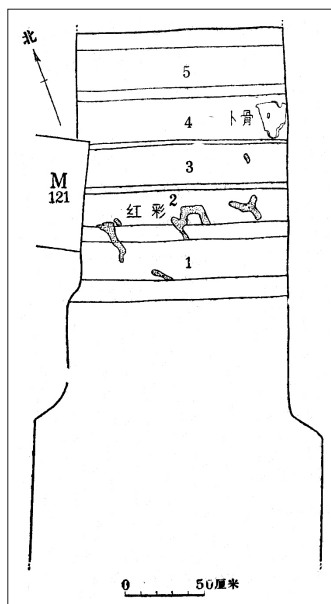
3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發掘報告1958-1961』, 文物出版社, 1987.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이해가 칠기류와 같은 채색유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상대사회에서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가늠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대사공촌 116호묘이다. 이 묘는 도4에서 보듯이 묘도에 5개 계단을 조성한 경우에 해당하며, 발굴보고서에서 전체 428기 묘 가운데 123호묘와 더불어 최상급 묘로 분류된 경우이다. 발굴보고서는 묘도를 갖춘 경우를 최상급 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116호묘의 경우 도4에서 보듯이 아래 계단으로부터 첫 번째(1), 두 번째(2), 세 번째(3) 계단의 흙벽에 채색을 가하여 묘 내부 벽면을 채색으로 장식한 유일한 실례에 해당하고, 유일하게 묘실 바닥에 주사를 뿌려놓은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안료와 묘주 경제력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이 묘는 인골과 수장품이 확인되지 않는 가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장품을 통한 채색 양상의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³²⁾

상대에는 관에 채색을 한 경우도 비교적 다수 나타나며 이 역시 본 연



도 4. 은허 대사공촌 116호묘 평면도(부분)

3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發掘隊, 「1958-1959年殷墟發掘簡報」, 『考古』 1961-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發掘報告1958-1961』 ; 김병모, 「商周시대의 안료와 채색문화 - 안료의 수급양상과 수요자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 『백산학보』 91, 2011, 58쪽 등 참조.

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發掘報告1958-1961』.

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제공한다.

1958-1961년 은허에서 발굴된 총 428기의 묘 가운데 관을 마련한 경우는 185기다. 그리고 목관 표면에 채색칠을 하거나 관위에 주사 편을 뿌려 놓은 경우는 총 28기인데 이들의 경우 대개 목관 크기가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소둔촌 215호묘와 대사공촌 101호묘 등과 같이 묘실에 요갱과 2층 계단 등을 추가로 조성한 경우 목관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새긴 선조에 채색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 안료의 종류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안료의 다양성 역시 경제력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읽게 한다.³³⁾

직물에 채색도안을 한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내용들이 읽혀진다. 직물에 채색도안을 한 경우는 대부분 관곽 위에 놓인 형태로 발견되는데, 주로 대형묘이자 특별한 구조를 갖는 묘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일례로 소둔촌 239호묘의 경우 관위에 덮어 둔 것으로 판단되는 만장(幔帳) 잔편이 묘실 내부 2층 계단 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묘는 428기의 묘 가운데 관곽과 관을 함께 갖춘 2기의 묘 가운데 하나이자 묘실 내에 2층 계단과 요갱을 갖춘 67기의 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³⁴⁾ 대사공촌 101호묘에서는 도철문과 비슷한 문양을 표현한 직물 채색도안이 흙에 붙은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이 묘 역시 2층 계단과 요갱을 갖춘 67기 묘 가운데 하나이자 10여 점의 청동기까지 부장품으로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³⁵⁾ 특히 동기 468점과 옥

3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發掘隊, 「1958-1959年殷墟發掘簡報」;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發掘報告1958-1961』.

34) 1958-1959년 발굴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1958-1959年殷墟發掘簡報」(『考古』 1961-2)에서는 260여기의 묘 가운데 관곽을 갖춘 묘가 3기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1958-1961년 발굴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殷墟發掘報告 1958-1961』(文物出版社, 1987)에서는 428기 가운데 2기로 언급되어 있다. 양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묘 가운데 서로 중첩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후자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다.

기 755점 등을 포함하여 상대 최대의 유물을 출토시킨 바 있는 소둔촌 부호묘의 경우 채색 도안직물이 칠관의 잔피와 더불어 출토된 유일한 채색 유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채색 수장품 가운데 채색 직물도 안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물목의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 묘는 상대 묘 가운데 석록안료의 원료인 孔雀石을 유일하게 출토시키고 있어 공작석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해하는데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을 제공한다.³⁶⁾

IV. 周代 社會에서 顔料의 社會經濟的 指標

1. 西周時代

주대 채색 문화는 춘추전국시대에 집중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서주시대는 이에 비하면 간소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 역시 춘추전국시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확인되는 서주시대 채색 자료는 칠기, 칠관곽, 안료 편, 채색 직물류 등으로 대체로 상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안료의 종류 역시 상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³⁷⁾

35) 직물의 크기는 길이 45cm, 세로 20cm이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發掘隊, 『1958-1959年殷墟發掘簡報』).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站, 『殷墟婦好墓』, 文物出版社, 198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站, 『安陽殷墟5號墓的發掘』, 『考古學報』1977-2.

37) 김병모, 『商周시대의 안료와 채색문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일단 주목되는 자료는 유리하유적, 양가촌유적, 낙양 방가구유적 등에서 보여준 칠기 및 안료 편 사용 양상이다. 북경에 위치한 유리하 유적의 경우 총 121기의 묘가 발굴되었으며, 이 가운데 관곽을 갖춘 묘는 묘 입구 길이가 대개 3m 이상에 해당하는 20여기의 중대형묘이다. 여기서 이들 묘에 주목하는 이유는 칠기의 소유와 인골 아래에 주사 편을 뿌리는 의식 등을 행한 경우가 주로 이들 중대형묘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묘의 경우 도굴로 인해 묘주 경제력과 칠기 소유량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豆, 觚, 壘, 壺, 簋, 杯, 盤, 俎, 彝 등 다양한 칠기의 적지 않은 소유를 통해 채색문화의 향유와 묘주 경제력과의 상관성을 일면 엿보게 한다. 아울러 이들 중대형묘의 경우 수레와 말을 매장하는 거마갱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1046호묘의 경우 말 14필과 동거 5량이 포함된 거마갱을 포함하여 옥관, 瑪瑙珠, 금박을 입히거나 녹송석으로 상감을 한 칠기, 호랑이와 새, 물고기 등의 형태로 제작된 옥기, 정교하게 장식된 청동 예기 등을 출토시킨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소유한 계층에서 향유했던 관곽 위의 직물류도 비록 훼손으로 채색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 중대형묘에서 출토시킨다.³⁸⁾

섬서성 기산현에 위치한 양가촌유적에서 발굴된 묘는 총 4기묘에 불과하지만 모두 중대형묘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1호, 2호, 4호묘에서 차별화된 주사 사용의 용례를 내보이고 있어 역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길이 4.4m, 폭 3m로서 함께 발견된 4기묘 가운데 가장 큰 4호묘의 경우 묘실 바닥에 뿌려놓은 주사 층의 두께가 3cm에 이르는데 비해 묘 입구

3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琉璃河考古隊·北京市文物工作隊, 「1981-1983年琉璃河西周燕國墓地發掘簡報」, 『考古』 1984-5.

가 길이 3.4m, 폭 2m로서 중형묘에 속하는 2호묘의 경우 직경 1cm 정도의 주사 덩어리 1개만을 묘갱 바닥에 뿌려놓은 정도이고, 훼손으로 묘 입구 길이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폭이 1.5m에 이르는 중형의 1호묘도 묘실 안에 마련된 2층 계단 위 동단에 주사를 뿌려놓았는데 역시 그 양이 소량에 불과하다.³⁹⁾

이들 3기 묘는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묘에서만 나타나는 관곽과 묘실 내 2층 계단을 갖추고, 깊이도 6-8m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안료 편 의 수장 역시 그러한 사회경제적 위상을 토대로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4호묘의 경우 1, 2호묘와는 안료 사용량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역시 경제력 차이가 중요한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다. 4호묘의 경제력은 동기 31점, 옥기 10점, 갑편 58점을 포함하여 300여 점에 이르는 부장품을 통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며, 유일하게 벽면에 백회로 능형문을 장식한 경우에 해당한다.

안료 사용과 경제력의 상관성은 낙양지역에 위치한 방가구유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총 300여 기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형에 해당하는 2기의 묘에서만 1-2점의 칠기를 수장하고 있다.⁴⁰⁾ 즉 盜豆 1점과 칠편 1점을 출토시키고 있는 410호묘의 경우 길이 4.16m, 폭 2.7m의 대형 장방형 수혈식 토갱묘에 해당하고, 칠기 잔편 1점을 출토시키고 있는 202호묘 역시 길이 3.9m, 폭 2.6m의 중대형 장방형 수혈식 토갱묘에 해당한다.

39) 扶風縣圖博館·羅西章, 「陝西扶風楊家堡西周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1980-2.

40) 洛陽博物館, 「洛陽龐家溝五座西周墓的清理」, 『文物』1972-9.

2. 春秋戰國時代

현재 확인되는 춘추전국시대 채색자료는 칠기, 칠관곽 등의 칠화 계통을 포함하여 채색 도기, 채색 木俑, 帛畫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부분 묘를 통해 출토된 경우에 해당한다.⁴¹⁾ 하지만 이들 채색자료의 대부분은 중대형묘에서 출토된 것이며, 소형묘의 경우 드물게 1-2점을 수장하는데 한정된다. 일례로 1951-1952년에 걸쳐 호남성 장사에서 발굴된 72기의 소형묘에서 출토된 채색 도기 및 칠기는 총 20여점이 전부이다.⁴²⁾

춘추전국시대 대표적 채색자료는 채색도기와 칠기이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대개 士급 이상, 즉 사, 대부, 제후급 등의 묘에서 주로 출토된다. 그나마 사급의 경우 여전히 적극적 소유가 쉽지 않은 양상을 드러낸다. 일례로 사급에 해당하는 전국시대 강릉 계야산 묘장군(1, 2, 3, 5, 6, 7호묘)의 경우 출토된 도예기가 10여종 90여점에 이르지만 채색이 이루어진 경우는 퇴 8점, 방 2점으로 기종과 수량에서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⁴³⁾ 도예기는 청동예기를 모방한 것으로서 당시에 가능한 채색을 적극 반영시키고자 한 수장품에 해당한다.

또 다른 사급 묘로서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무창의지(武昌義地) 묘장군 11기의 경우도 출토된 도기 84점의 대부분을 도예기가 차지하는데 채색을 한 경우는 각 묘마다 2점씩 총 20여점에 불과하다.⁴⁴⁾ 사용된 채색 안료의

41) 김병모, 「춘추전국시대 안료기반과 안료산출지」, 『고조선단군학』 26, 2012.

42) 이 발굴에서 발견된 묘는 총 73기이지만 묘 입구 길이가 4.8m에 해당하는 중형의 406호묘는 제외하였다. 채색 도기는 돈과 호 2점이며, 칠기는 10여점이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長沙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957, 28~31쪽).

43) 확인되는 도예기 기종은 정(鼎), 보(簋), 방(鉢), 악(缶), 壺(壺), 퇴(壘), 화(盃), 두(豆), 작(勺), 반(盤), 이(匱), 돈(敦), 두(斗) 등이다(湖北省博物館江陵工作站, 『江陵溪嶺山楚墓』, 『考古』 1984-6).

44) 무창의지에서 발굴된 묘 가운데 춘추중기의 1호묘와 동주시대 것으로 언급된 2

종류도 전부(奠缶)에 사용된 흑, 홍, 황 3색에 근거할 경우 2-3종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릉 망산 3호묘와 강릉 사총 3호묘도 1판 1곽을 갖춘 전국시대 사급 묘로서 각각 6점, 9점의 도예기를 출토시키고 있는데, 망산 3호묘의 경우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소면(素面) 상태이고, 사총 3호묘의 경우만 호(壺) 2점에서 채색이 확인되는 정도이다.⁴⁵⁾

드물게 사급 묘에서 채색문화가 적극 개진된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 대개 경제력이 특별히 양호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례로 강릉 마산 1호묘의 경우 사급이지만 도예기 11점 가운데 9점에 채색이 이루어져 앞에서 본 사급 묘와는 많은 차이를 내보이는데⁴⁶⁾ 이 묘의 경우 도예기가 아닌 청동예기 자체를 8점이나 수장하고⁴⁷⁾ 칠기도 77점이나 수장하고 있다.

반대로 대부급에 해당하면서도 경제력이 여의치 않아 사급과 유사한 채색문화를 내보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하대부급에 해당하는 사총 1호묘의 경우 도예기 30점 가운데 채색이 이루어진 경우가 4점에 불과해 사급에 가까운 채색수준을 보여준다. 이 묘의 경우 같은 하대부급묘인 망산 1, 2호묘와 비교했을 때 묘의 규모는 물론이고 청동예기의 수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아래 표에는 같은 신분이지만 묘주 경제력에 따라 채색문화의 전개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당시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즉 같은 하대부급이지만 묘의 규모와 청동예기 소유량 등의 차이에 수반하여 채색도예기 수량과 전체 도예기에서 채색도예기가 차지하는 비

호묘는 전국시대 것으로 분류하기가 분명치 않아 제외하였다(江陵縣文物局, 『湖北江陵武昌義地楚墓』, 『文物』 1989-3).

45)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江陵望山沙冢楚墓』, 文物出版社, 1996.

46) 출토된 도예기의 기종은 정(鼎), 둔(敦), 호(壺), 초호(鑊), 반(盤), 이(匱), 작(勺), 두(斗) 등이며 종류별 채색은 정 2점, 둔 2점, 호 2점, 초호 1점, 이 1점, 반 1점이다(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 『江陵馬山1號楚墓』, 文物出版社, 1985).

47) 청동예기 8점을 구체적으로 하면 정 1점, 호 1점, 이배 2점, 작 1점, 비(匕) 1점, 이(匱) 1점, 주(舟) 1점 등이다. 문식은 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양이 없는 소면이다.

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내용은 채색문화가 크게 확산된 춘추전국시대에도 채색문화의 향유는 여전히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적극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표 4. 전국시대 사급 묘의 경제력과 채색문화 향유 현황

구분	망산 1호묘	망산 2호묘	사총 1호묘
청동예기 수량	29점	27점	0점
묘장 전체 길이	28.3m	20.44m	16m
사파묘도 길이	17.7m	11.2m	9.1m
갱구 크기	16.1×13.5(m)	11.8×9.43(m)	9.9×7.8(m)
태계 층수	5층	3층	3층
갱구 바닥 깊이	8.4m	6.69m	5.68m
묘갱 바닥 크기	6.5×4.2(m)	5.75×3.3(m)	4.3×2.26(m)
곽 크기	6.4×4.8×2.2(m)	5.8×2.96×2.5(m)	4.2×2.34×1.7(m)
외관 크기	2.78×1.66(m)	2.82×1.62(m)	2.55×1.15(m)
관곽 수량	1곽2관	1곽3관	1곽2관
도예기 수량	65점	34점	30점
채색도예기 수량	23점	8점	4점
채색도예기 비율	35%	23%	13%
관곽 표면 장식	채칠	채칠	무칠

V. 結論

지금까지 선진시대 사회에서 안료의 향유 및 소유 행위가 사회경제적

으로 어떠한 상관성과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상관성과 의미가 교역품으로서 안료에 대한 인식을 진전시켜 가는데 어느 정도의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였다. 검토 내용을 적요하여 결론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신석기시대의 경우 이미 상층, 중간층, 하층 등으로 구분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분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채색 장식에 대한 의욕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안료의 소유 및 사용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되어 가능한 것으로, 특히 최상계층을 중심으로 안료 및 채색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게 실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채도가 비교적 원거리 교역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옥기의 희소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상황들도 일부 지역에서 출현시킨다.

기원전 2000년 전후에 해당하는 초기 청동기시대의 경우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채색의욕이 여전히 높게 지속되고,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안료의 사용과 향유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에 따라 안료 소유 역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채색을 제약하는 상황이 등장할 경우 대형묘 위주로 채색문화가 적극 향유되는 상황들을 확인시킨다.

상대의 경우 안료 공급의 어려움으로 채색문화 기반이 약화된 탓인지 계층간 안료 소유의 차별화가 더욱 심화된 모습을 보이며, 따라서 주로 최상계층을 중심으로 안료의 소유와 향유가 편중되는 양상들을 빈번하게 출현시킨다. 사회경제적 분화가 더욱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층간 안료 소유의 편중화 역시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주시대의 경우 상대에 출현시킨 양상들, 특히 경제력에 따라 안료 소유의 차별화가 심화된 양상을 거의 그대로 지속해간다. 뒤 이어진 춘추 전국시대에는 채색도예기와 칠기 등이 채색문화를 주도하는 주요 품목으

로 등장하며, 신분적으로 士급 이하에서는 이들 채색문화의 향유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대부급에 비해 사급 역시 채색문화의 향유에서 상당히 소외된 계층에 해당하며, 특히 경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채색문화의 적극적 향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신분보다 경제력 문제가 채색문화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신석기시대를 포함한 선진시대에 이미 안료가 상당한 경제력에 기초하여 향유, 인식되었음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낸다. 아울러 교역품으로서 안료의 사회경제적 지표 역시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지시한다. 나아가 선진시대에 안료가 이미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신석기시대에 일상용의 석기 제작을 위해 300-400km 떨어진 거리에서 석재를 조달하거나 장거리 교역을 통해 옥기를 수급한 사실, 나아가 채색 도기가 옥기 못지않은 희소성을 갖는 물품으로 취급된 사실 등은 교역품으로서 안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다.

(2019.11.18. 투고 / 2019.12.10. 심사완료 / 2019.12.10. 게재확정)

[Abstract]

Socio-Economic Indicators of Pigments as Trading Goods

– Focusing on the Xianqin Period of China –

Kim, Byoung-M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diverse discourses about the relation points, the correlations of pigments' enjoyment and possession for society and economy. In addition, it intended to prepare foundation and opportunity to discuss about the awareness about pigments as trading product in new boundary.

As a result of examination, possession and use of pigments were possible to secure a certain position of society and economy in the Neolithic era and especially, it's grasped to realize a strong desire of ownership of pigments and coloring by focusing on the highest class. In addition, it's confirmed to recognize chroma at the level similar nearly to scarcity of Jade period.

And then, while entering Shang Dynasiy through the early Bronze Age, differentiation of pigments possession among classes became more deepened and in Western-Zhou period, the tendency was maintained as it was. In cas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classes less than the status of classical scholar had difficulties in enjoying coloring culture and if there is a problem in economic power, it was nearly impossible to enjoy coloring culture actively regardless of status. In other words, economic power rather than status was decisive factor making

an effect on enjoyment of coloring culture.

Due to the above contents, it's expected to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of pigments approached the high level as trading product in XianQin period including the Neolithic era.

□ Keyword

XianQin period, the Neolithic Age, pigments, pigments trading, the price of pigments, the socioeconomic indicators of pigments

[참고문헌]

- 김병모, 「중국 신석기시대 채도의 장식 개념과 목적」, 『先史와 古代』 33, 2010.
- _____, 「中國 新石器時代의 顔料」, 『단군학연구』 22, 2010.
- _____, 「중국 신석기시대 도기에서 표면장식을 대하는 기본 입장 - 장식의 목적과 의욕을 중심으로 -」, 『단군학연구』 23, 2010.
- _____, 「중국 신석기시대 도기의 채색표현법과 안료수급의 관계 - 대문 구유적과 유만유적의 채색도기를 중심으로 -」, 『고조선단군학』 24, 2011.
- _____, 「夏代의 안료와 채색문화 - 안료의 사용과 채색문화기반의 변화 원인을 중심으로 -」, 『고조선단군학』 25, 2011.
- _____, 「商周시대의 안료와 채색문화 - 안료의 수급양상과 수요자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 『백산학보』 91, 2011.
- _____, 「회화 표현 개념의 하부구조로서의 채색 의욕에 관하여 - 전국진 한시대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52, 2013.
- 郭德維, 『楚系墓葬研究』, 湖北教育出版社, 1995.
- 譚維四, 『曾侯乙墓』, 三聯書店, 2003.
- 山東省文物管理處·濟南市博物館, 『大汶口 - 新石器時代墓葬發掘報告 -』, 文物出版社, 1974.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大汶口續集 - 大汶口遺址第2·3次發掘報告書 -』, 科學出版社, 1997.
- 山東省博物館, 『鄒縣野店』, 文物出版社, 1985.
- 安徽省博物館, 『壽縣蔡侯墓出土遺物』, 科學出版社, 1956.
- 劉和惠, 『楚國的礦冶髹漆和玻璃制造』, 湖北教育出版社, 1995.

- 張正明,『楚文化史』,上海人民出版社,1995.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長沙發掘報告』,科學出版社,1957.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寶鷄北首嶺』,文物出版社,1983.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文物出版社,1984.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膠縣三里河』,文物出版社,1988.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中國考古學中碳十四年代數據集 1965-1991』,文物出版社,1992.
- 陳振裕,『戰國秦漢漆器群研究』,文物出版社,2007.
- 青海省文物管理處考古隊·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青海柳灣 - 樂都柳灣原始社會墓地 -』,文物出版社,1984.
- 河南省文物研究所,『信陽楚墓』,文物出版社,1986.
- 夏湘蓉 외 2人,『中國古代礦業開發史』,地質出版社,1980.
- 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江陵馬山1號楚墓』,文物出版社,1974.
-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江陵望山沙塚楚墓』,文物出版社,1996.
- 甘肅省博物館,「甘肅秦安大地灣901號房址發掘簡報」,『文物』1986-2.
- 甘肅省博物館文物工作隊·武威地區文物普查隊,「甘肅秦安大地灣遺址1978至1982年發掘的主要收穫」,『文物』1983-11.
- 甘肅省博物館文物工作隊·武威地區文物普查隊,「甘肅秦安大地灣第9區發掘簡報」,『文物』1983-11.
- 江陵縣文物局,「湖北江陵武昌義地楚墓」,『文物』1989-3.
- 考古研究所渭水調查發掘隊,「寶鷄新石器時代遺址第2,3次發掘的主要收穫」,『考古』1960-2.
- 考古所寶鷄發掘隊,「陝西寶鷄新石器時代遺址發掘紀要」,『考古』1959-5.
- 洛陽博物館,「洛陽龐家溝五座西周墓的清理」,『文物』1972-9.
- 扶風縣圖博館·羅西章,「陝西扶風楊家堡西周墓清理簡報」,『考古與文物』

1980-2.

商縣圖書館·西安半坡博物館·商洛地區圖書館,「陝西商縣紫荊遺址發掘簡報」,『考古與文物』1981-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斗工作隊,「河南偃師二里斗遺址三,八區發掘簡報」,『考古』1975-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寶鷄工作隊,「1977年寶鷄北首嶺遺址發掘簡報」,『考古』1979-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山西襄汾陶寺遺址發掘簡報」,『考古』1980-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工作隊,「1978-1980年山西襄汾陶寺墓地發掘簡報」,『考古』1983-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琉璃河考古隊,北京市文物工作隊,「1981-1983年琉璃河西周燕國墓地發掘簡報」,『考古』1984-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斗隊,「1980年秋河南偃師二里斗遺址發掘簡報」,『考古』1983-3.

青海省文物管理處考古隊·北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青海樂都柳灣原始社會墓葬第1次發掘的初步收獲」,『文物』1976-1.

青海省文物管理處考古隊·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青海隊,「青海樂都柳灣原始社會墓地反映出的主要問題」,『考古』1976-6.

荊州地區博物館,「江陵天星觀1號楚墓」,『考古學報』1982-1.

湖北省博物館江陵工作站,「江陵溪峨山楚墓」,『考古』1984-6.

